

# 이통 3사 “LTE 황금주파수를 잡아라”

## 미래부 8월까지 2개 대역 경매 할당 KT·SKT·LGU+, 사활 건 쟁탈전

이동통신 업계의 ‘황금주파수(1.8GHz)’ 대역 경매가 치열하다.

주파수는 ‘모바일 고속도로’=미래부 8월까지 2개 대역 경매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주파수는 ‘모바일 고속도로’다. 전파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이 주파수를 통해 이동한다. 라디오, TV, 휴대전화에서 주고 받는 모든 정보는 진동수, 파장 등 고유한 특성을 갖고 각각 정해진 주파수를 이용해 전달된다.

주파수는 정부에서 공영재로 관리

하며, 주파수 대역(帶域·band)을 정해진 사용자에게 할당해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사업자 간 전파의 충돌과 혼선을 예방하고 있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은 고속도로 폭이라 할 수 있다. 대역이 많을수록, 데이터의 전송량과 속도가 늘어난다.

황금주파수를 잡아라=미래부는 2.6GHz에서 40MHz 대역의 2개 구간(A·B블록)을, 1.8GHz에서 35MHz(C블록), 15MHz(D블록) 대역 2개 구간을 추가 할당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1.8GHz 대역에서 SKT와 LGU+는 각각 40MHz를, KT는 50MHz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1.8GHz와 같은 고주파는 음성통

이동통신 3사 LTE 주파수와 정부가 할당할 주파수



화 시대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데이터 전송이 중요해진 오늘날 다수의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 대역을 LTE 서비스에 사용하면서 ‘황금 주파수’로 부상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42개 사업자가 1.8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9개 사업자는 2.6GHz대역을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될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로밍이나 단말기 호환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논란도 적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D블록은 KT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20MHz LTE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인접 대역’이다. LTE는 대역이 늘어나면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가 향상되는 성질이 있는데, KT가 D블록을 갖게 될 경우 같은 무선통신 사업 용도로 주파수 대역을 합하는 ‘광대역(broadband)’이 가능해져 서비스 차이로도 이어진다.

미래부 추가 할당 대상으로 정해놓은 1.8GHz나 D구간은 KT가 현재 사용하는 20MHz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

으로, KT가 이 대역을 추가로 확보하면,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현재 LTE 속도인 75Mbps를 150Mbps로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게 된다.

SKT나 LGU+ 입장에서 D블록을 차지하더라도 트래픽 완화 수준의 효과가 전부다. 하지만 서비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상 KT에게 이를 뺏길 수는 없다고 나섰다. SKT와 LGU+는 KT가 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 ‘사실상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중계장치 교체 등 소규모 투자만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KT와 달리 전문화된 비용이 들어야 하는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이미 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주파수 할당 원칙 중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카카오톡 PC버전 내달 출시 PC 메신저 시장도 평정할까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6월 중 PC버전을 내놓고 PC 메신저 시장 공략에 나선다.

29일 카카오톡 운영체제인 카카오톡 PC버전(베타테스트)을 거쳐 다음달 정식 출시된다.

카카오는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 3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터 1만명을 선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당시 21만명이 신청, 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카카오톡 PC버전은 스마트폰이 아닌, PC로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기능친구목록, 채팅창, 읽음 표시 등 현재 모바일 버전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PC버전이 6월 중에 출시되면 PC 메신저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PC버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PC 메신저 시장 1위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버메신저,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메신저는 지난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카카오톡 PC버전이 PC 메신저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4개의 HD 채널을 한 화면서 동시에

### LG유플러스 고화질 멀티뷰 서비스 첫 선

한 화면에서 채널을 돌리지 않고 4개 채널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가 한 화면에서 4개의 서로 다른 채널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송기술을 자사의 인터넷TV(IP-TV) 상품인 ‘u+ tv G’에 도입하면서다.

LG유플러스는 30일 실시간 방송을 4개 화면으로 나눠 보여주는 ‘HD 멀티뷰(HD Multi-View)’ 방송기술이 적용된 u+tv G 4채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기술은 고화질의 다채널 비디오와 오디오를 화질이나 음질 손실없이 구현하는 점이 특징이다.

NHN이 화면 분할을 통해 최대 4개 스포츠 경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HD급 화질과 스테레오 음질을 지원하지는 못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지상파 방송과 스포츠, 홈쇼핑 등 3개 카테고리 12개 채널

에 한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는 카테고리별로 묶여 있어 개별적으로 채널을 선택해 화면을 구성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서울지역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 전국 이용자가 이용 가능토록 하고, 서비스 대상 채널도 영화, 애니메이션, 뉴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프로야구를 좋아 하는 고객이라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를 실시간으로 한번에 시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u+ tv G 화면을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용 어플리케이션(앱)도 선보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U+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이 앱을 설치하면 스



‘HD 멀티뷰(HD Multi-View)’ 시연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마트폰에 TV 화면이 그대로 구현돼 손쉽게 TV를 제어할 수 있다.

또 별도의 게임패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음성인식 검색 기능도 더해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문자메시지 보내듯이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번으로 u+tv G로 송신할 수 있는 올이피프(All-IP) 서비스도 출시했다.

구글 플레이나 U+ 스토어에서 ‘원터치플레이’ 앱을 내려받은 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갤러리에서 ‘u+tv G로 보내기’ 아이콘만 클릭하면 바로 TV로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국내외 여행이든 업무상 출장을 간 가족이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이를 TV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낸 사진은 u+tv G에 자동 저장도 가능해 편리하다.

기존 u+tv G 고객이라면 셋톱박스 교체 없이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월 9천 900원(VAT 별도, 3년 약정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

### 날씨·생활지수 앱에 다 있네

이번 주말, 놀러가는 데 비가 올까, 바람도 부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 날씨 어플리케이션(앱)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그만큼 날씨 앱도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담기 위해 진화중이다.

‘테이크 웨더’(Take Weather)는 ‘날씨 사진 전문 SNS’로, 날씨 앱에 사진 앱을 결합했다. 자신이 날씨를 찍고 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다. 올린 사진 밑에는 그날의 온도와 날씨 상태, 시간, 장소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자신만의 ‘날씨 일기장’을 만들 수 있다.

‘올레 날씨’는 우선-새차-자외선-나들이 지수 등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지수는 물론, 날씨에 민감한 이들을 위한 바이오 리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상정보 전문업체인 ‘케이웨더’의 날씨 앱은 방송, 뉴스, 기상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 기상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고액대출환영
- ▶ 사업자금대출
- ▶ 미준공건물
- ▶ 공유지분대출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하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부동산재테크컨설팅,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1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120억
-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4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신단지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1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 토지매매

- ▷ 화순읍 연암리 자연복지 단지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1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주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기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방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